

사회사업 기록, 사회사업 글쓰기

사회사업가의 일은 사회사업답게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글은 사회사업답게 씁니다.

2025년 5월 19일

사회사업 기록, 사회사업 글쓰기

부록: 우리말글

글과 기록	2	1. 강조 표현	42
사회사업 기록	4	2. 틀리다	43
사회사업 기록, 무엇을 쓸까?	10	3. ~다라고, ~다라는	44
사회사업 기록, 어떻게 쓸까?	17	4. 갖다, 가지다	44
글쓰기 방법	27	5. 수동태를 직역한 듯한 표현	45
삼단(단순 단아 단단) 글쓰기	36	6. 뜻을 혼동하여 잘못 쓰는 말	46
사회사업 기록 7문답	37	7. 중복 표현	49
		8. 시키다	50
		9. 고민하다	50
		10. 여러 가지	51
		11. 고맙다와 감사하다	56
		12. 지나친 겹손, 모호한 표현	59
		13. ~가 아닌 ~	62
		14. 단순히	63
		15. 필요 없다	63
		16. 요결에서 없앤 말, 바꾼 말	64
		바른 글 좋은 글	68

글과 기록

1. 글의 종류

1) 문학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을 일컫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감성을 활용한 예술적 표현을 중시하며, 읽는 이에게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 소설 극본 따위가 그려합니다.

2) 논리 글(비문학)

어떠한 논리나 주장, 사실, 정보 따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문학이 아닌 글’이라는 의미에서 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로 논증¹⁾같은 논리적 표현을 중시합니다. 읽는 이에게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 정보, 기술 따위를 전달합니다.

과학 도서 기술 도서 인문학도서 법률 논문 칼럼 보고서 제안서 설명서 애세이 성명서 증명서 신문 기사 안내문 공고문 사전 역사책….

사회사업 기록은 문학과 논리 글 사이 어딘가에서 둘 모두를 아우르지만, 사회사업이라는 근본을 바탕으로 실천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논증)하고, 이로써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논리 글에 더 가깝습니다.

1)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것. 자기의 주장을 말하거나 글로 쓸 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을 논증이라고 한다. 이때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근거라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기록의 개념

- ① 기록(記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표준국어대사전)
- ② 기록(Record): 개인이나 조직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

사회사업 기록

1. 사회사업 기록의 정의

1) 개념적 정의

‘사회사업’과 ‘기록’의 합성어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돋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돋고,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돋는 겁니다. 『복지요결』 2025.02.09.

앞 명사 ‘사회사업’이 뒤 명사 ‘기록’을 수식합니다. 『복지요결』에서 밝힌 ‘사회사업 개념’으로써 주 명사 ‘기록’의 방법과 목표를 한정한 겁니다. 이를테면 사회사업과 관련한 기록, 사회사업다운 기록, 사회사업을 실천한 기록입니다.

이로써 ‘사회사업 기록’의 개념을 정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 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일을 적음. 또는 그런 글.
- ② 사회사업이나 기관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 기록하고 남기는 정보.

2) 조작적 정의

사회사업 기록을 사회사업 실제에 맞게 정의합니다. 사회사업 기록이라는 용어가 실무에 정합하게 합니다.

1)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社会의 이야기를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社会의 생각 감정 행위와 그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를 씁니다.

2) 사회사업 이야기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사회사업 가의 이야기를 씁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생각 감정 행위와 그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사회사업’ 이야기를 씁니다. 『복지요결』, 2025.02.09.

『복지요결』에서는 사회사업 기록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그리고 이를 거든 사회사업가의 실천을 아우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가’ 글의 줄거리라면 ‘사회사업 이야기’는 줄거리를 보충 설명하는 사회사업가의 해설입니다. 왜 그리 도왔고, 어떤 마음이었고, 실천의 근거는 무엇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떠하길 바랐는지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 글쓰기’는 실천 과정을 ‘의도와 근거와 성찰’을 담아 글로 남기는 일입니다. (...) 사회사업 실천의 자기 철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의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행위가 글쓰기입니다. 『사회사업 글쓰기』(김세진, 구슬께는실, 2022)

사회사업 기록은 단순히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술하는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이야기, 그리하도록 거둔 이야기(사회사업가의 실천)를 기록하며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품은 사회사업가의 생각 바람 의도 근거, 실천의 결과에 따른 해석과 성찰을 기록하는 이념적 실천입니다.

이를 나름대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사업 기록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일을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근거, 성찰을 담아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입니다.²⁾

2) 엄격하게 말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뤄간 이야기가 담기지 않거나 사회사업가의 의도 근거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글은 사회사업 기록이라 하지 않습니다. 관찰 일지, 생활 일지라 합니다.

그렇기에 정합성 평가하며 지난 1년의 기록을 엮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도운 기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게 도운 기록, 사회사업가의 의도 근거 성찰이 담긴 기록. 각각은 사회사업 기록의 정의에 꼭 들어맞지 않으나, 이를 한데 엮으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일을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근거, 성찰을 담아 기록한 글’이 됩니다.

2. 사회사업 기록의 의미

1) 사회사업가의 성장을 위해

공부한 만큼 실천하고, 실천한 만큼 기록합니다. 공부한 만큼 나아가고 나아간 만큼 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글이 내 실천의 한계고, 지금의 실천이 내 배움의 한계입니다.

기록하며 내 실천을 돌아봅니다. 실천 과정을 글로 정리하면 사회사업답게 잘 도운 일, 더 힘쓸 일, 부족한 일, 새롭게 알게 된 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나의 태도 따위가 보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고도로 숙련된 사회사업가도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 또한 잘 기록한다면 딛고 나아갈 발판이 됩니다. 내 공부가 얕다면 더더욱 잘 기록해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공부의 핵심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읽으며 배우고 쓰면서 성찰합니다.

글 쓰는 나에게,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실천을 점검하고, 태도를 살핍니다. 글이 성찰의 도구가 됩니다. 당사자를 잘 돋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글로써 당사자를 향한 내 마음을 바르게 다듬습니다. 바른 글이 그 마음을 바르게 빚어냅니다. 『사회사업 글쓰기』(김세진, 구슬깨는실, 2022)

2) 동료와 후배를 위해

기록은 ‘사례’입니다. 사례는 동료와 후배를 응원하는 도구이자, 한발 앞선 이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자세,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위한 궁리와 성찰, 그리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 도운 기록은 선행 연구로써 귀한 가르침이 되고, 잘 돋지 못한 기록은 훗날 누군가에게 이를 되풀이 하지 않을 지혜가 됩니다. 실천의 성패(成敗, 성공과 실패)는 있을지언정 쓸모없는 사회사업 기록은 없습니다.

글 읽는 동료와 후배에게

좋은 사례를 남깁니다.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살려 돋는 이야기를 읽으며 확신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다짐합니다. 『사회사업 글쓰기』(김세진, 구슬께는실, 2022)

기록은 사회사업 산물이고, 기록은 사회사업가의 산물입니다. 공부하고 궁리하고 적용하고,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다시 공부가 되고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기록은 이정표였고, 기록은 역사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으면 흩어졌습니다. 해마다 기록을 엮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올바로 가는지, 주저하고 산만했던 발자국 조차 선명했습니다. 기록은 사회사업을 밝히고, 기록은 사회사업가의 길을 밝혔습니다.

신입 직원과 후임자는 먼저 ‘월평의 기록’을 읽습니다. 1,500쪽에 달하는 한 입주자의 10년 기록을 읽으며 머리에 새기고 몸에 새깁니다. 기록은 역사가 되었고, 기록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월평빌라 이야기2』(박시현 역음, 푸른복지, 2019)

3)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사업 기록은 독자(讀者, 읽는 사람)가 있는 글입니다. 그 독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둘레 사람), 동료 사회사업가입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생각합니다.

기록은 당사자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사회사업 기록에는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강점 많은 이로 바라보는 시선이, 당사자가 사람답게 살길, 지역사회가 정의로워지길 바라는 소망이, 당사자와 함께해 주신 둘레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널리 읽힐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약자와 가까워질 겁니다.

사회사업의 핵심은 관계. 진심을 담은 글은 신뢰를 이어주는 마중물이 되기도, 이미 맺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행위는 그 의미를 밝혀 이야기로 서술할 때 비로소 사회사업 기록이 되고, 사회사업 기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유할 때 비로소 사회사업 역사가 됩니다. 『복지요결』, 2025.02.09.

글 읽는 당사자에게,

쓴 글을 당사자와 공유하며 당사자와 신뢰가 생깁니다. 글로 당사자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사자도 글을 읽으며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에 함께합니다.

특히, ‘글 읽는 당사자에게’ 우리 기록이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의 강점과 역량을 마음에 두고, 단점은 오목렌즈로 강점은 볼록렌즈로 보려 애쓰는 존재입니다. 사회사업가의 기록은 이런 마음과 그렇게 이뤄가는 과정을 남기는 일입니다. 『사회사업 글쓰기』(김세진, 구슬께는실, 2022)

사회사업 기록, 무엇을 쓸까?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일을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근거, 성찰을 담아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라는 사회사업 기록의 정의를 바탕으로, 무엇을 붙잡고 기록할지 궁리합니다.

1.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당사자가 삶의 주인으로 산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울려 살고 더 불어 산 이야기를 씁니다.

먹기 씻기 옷 입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밥 짓기 설거지하기 이동하기 따위의 일상부터³⁾, 취미 신앙 학교 직장에서 복지를 누린 일, 가족 이웃 친구 성도 회원 손님 직원 학생 시민으로서 노릇한 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산 이야기를 씁니다.⁴⁾

지역사회 둘레 사람과 관계한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노력하고 애쓴 일, 고마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보람찬 일, 잘된 일, 궁리한 일, 공부한 일, 후회한 일, 마음을 주고받은 일… 정겨운 사람살이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씁니다.

다만, 당사자의 모든 일을 날낱이 기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사업답게 도울 일 가운데 특히 힘주어 도울 일을 정하고, 그 과업을 거든 이야기를 씁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모든 일을 도울 수도 없거니와, 설령 돋는다더라도 모두 기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⁵⁾

3) 시설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시설에서는 사회사업으로 돋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칩니다. 혹자는 작은 일상까지 지원하고 기록하는 것이 과하다 할지 모르나, 시설마다 그리고 입주자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이를 헤아려 돋고 기록합니다. 입주자를 개인별로 지원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4)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돋는 일’입니다.

5) 연간 지원 계획을 세우며 그해에 집중해서 지원할 만한 몇 가지 과업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무리하게 많은 목표는 이를 지원하는 사회사업가도, 이를 감당할 당사자도 지치기 쉽습니다.

2) 사회사업가의 이야기

사회사업가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게 거둔 이야기,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 관계를 주선한 이야기, 당사자가 가족 이웃 친구 성도 회원 손님 직원 학생 시민으로서 노릇하게 도운 이야기를 씁니다.⁶⁾

3) 사회사업가의 의도 근거 성찰

사회사업가의 실천에 담긴 의도, 근거, 그에 따른 성찰(해석)을 씁니다.

① 의도

‘왜 그렇게 실천했는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고 둘레 사람과 더불어 살게 돋는 작위적⁷⁾ 실천입니다. 똑같이 돋고 기록했더라도 의도를 밝혔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사회사업 실천으로 보일 수도, 우연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있게 공부한 사회사업가의 실천이 ‘어쩌다’ 이뤄진 일로 치부된다면 매우 아쉬울 겁니다.

6) 어느 사회사업가가 물었습니다. 당사자의 삶이고 당사자가 삶의 주인이니, 되도록 사회사업가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당사는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그런 당사를 돋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 기록에 사회사업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산 일이 당사자 혼자 힘으로 이룬 일인지 사회사업가의 도움으로 함께 이룬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곧, 사회사업가의 실천이 드러나지 않는 기록은 사회사업 기록의 정의에 꼭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사업 기록은 분명 당사자의 간접에 주목해서, 당사자가 힘 있게 되게, 사회사업가보다 드높여지게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가 죄인처럼 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를 거드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밝혀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돌보이는 표현 방법’ (23쪽) 참고.

7) 작위(作爲): 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사업 실천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사회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니다. 확고한 정체성이 관점을 만들고, 그 시선에서 돋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의도를 밝히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돋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총무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해봤으나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신다. 지금 다른 시설 장애인들도 안 받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참여하시면 다른 시설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저씨께서 노래교실에 잘 참여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하셨다.

회장님과 회원들의 사정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었다. 나의 삶터에서 장애가 있는 이를 자주 겪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과거에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셨다고 하니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저씨께서 노래교실에 함께하시길 바랐다. 지역사회가 아저씨를 ‘장애인’이 아닌 ‘박창동’으로 바라봐주길 소망했다. 그 뜻을 담아 회장님께 부탁드렸다.『나도 그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최승호, 다온빌, 2025)

당사자에게 몸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래교실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를 ‘장애인’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부탁드렸습니다. 지역사회가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길 바라는 사회사업가의 바람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② 근거

실천의 근거는 무엇인지 씁니다.

『복지요결』에서 밝히는 사회사업 개념 가치 윤리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을 생각합니다. 동료의 앞선 기록을 참고하거나,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 이론 모델 기법 생각 의견 따위를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사회사업가의 실천에 전문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근거를 찾고 궁리하는 과정이 사회사업가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이 됩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이옥순 님은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어려운 이옥순 님을 생각하면 사회사업가인 나는 그 사회적 고립이 더욱 무섭다.

(중략)

그래서 이옥순 님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만나 함께하는 날이 많아져 마음의 불안함을 이겨낼 힘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더 자주 집 밖으로 나가자고 생각했고 가장 먼저 생각한 곳이 ‘교회’였다.

다른 사람과 매일 접촉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회통합은 우리에게 선택 사항을 제공한다.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동료, 클럽 회원, 고객, 음주 그룹 등 누구든지 상관없다)은 우리가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기분을 복돋우는데 도움을 준다. 그 효과는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가끔 보는 그가 친구보다 더 중요한 이유』(멜린다 블라우, 캐런 핑거맨, 21세기북스, 2011)

『사회사업가이기에, 글쓰기』(고진실 외, 구슬꿰는실, 2023)

사회사업가는 마음의 불안으로 스스로 고립을 택한 당사자가 여러 사람과 관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랐습니다. 기록에 그 의도를 밝히며, ‘관계’를 다른 책의 구절을 그에 따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 성찰

실천의 결과와 실천 과정에서 느낀 사회사업가의 생각 고민 궁리 배움 소망 감사 후회 반성 깨달음 따위의 성찰을 씁니다.

의도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핍니다. 계획대로 실천했는지, 의도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의도한 것 이외에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 결과로써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찌 되었는지 씁니다.

의도와 달리 훌러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사업가로서 미처 살피지 못한 일은 없는지, 과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부담 가질 만한 일은 아니었는지 따위를 돌아보고 기록합니다.

실천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실천 과정에서 느낀 사회사업가의 성찰을 씁니다. 성찰하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찰하고 공부하며 내 실천을 다듬습니다. 기록한 만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현민 아저씨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진 씨와 미용실을 다녀왔다. 오후에 직원과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저씨, 미용실 다녀올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여행도 가니까, 어제 재진이한테 가자고 했죠.”

“가는 길 어렵지 않았어요? 길 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죠?”

“네, 거기서 헛갈렸는데 통화하고 잘 찾아갔어요. 손님이 많아서 조금 오래 기다렸어요.”

“다음에도 두 분이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얼마 전, 직원이 미용실 갈 때는 차로 지원할 테니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라고 권했다. 그때는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아 망설였다. 여행을 가기 전에 미용실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니 용기를 내어 다녀왔다.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 곳이 늘었다. 『속골 작은집 사람들』(윤주영 역음, 구슬께는실, 2021)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에게 버스 타고 미용실 다녀오시길 권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망설였지만, 여행을 앞두니 당사자도 용기 내어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당사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늘었습니다.

영수와 영수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첫째, 영수와 친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이를 통해 영수의 속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PC방을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영수가 좋아했던 옥수수크림도 자주 먹으면서 영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좀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유급판정을 받기 전 과정에만 집중하기보다 받은 날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곡선의 시선(1)』(김세진 역음, 구슬께는실, 2023)

한 청소년을 지원했던 어느 사회사업가는 훗날 그날의 일을 다시 기록하며 자기 실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성찰이 다른 때 다른 당사자를 더 잘 거들게 하는 힘이, 동료 후배 사회사업가에겐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사회사업 기록,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좋은 글’인지는 글의 종류 내용 성격 목적 시대 저자 독자 따위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교수의 논문은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가 핵심이고, 시인의 글은 음률과 은유, 감성적 표현 따위가 좋고 나름을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동화책은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글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 기록은 어떠해야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 기록도 사회사업답게 씁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 사회사업가로서의 정체성, 사회사업 기록의 독자, 사회사업 기록의 의미를 살펴 ‘좋은 사회사업 기록’에 관한 나름의 기준을 궁리합니다.

1. 공감할 수 있는 글

사회사업 기록은 독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일지라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잘 거들었더라도 읽는 이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바래집니다.

당시의 상황, 당사자나 둘레 사람, 사회사업가의 감정 느낌 소회 따위가 읽는 이에게 잘 전해지게 씁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⁸⁾

각종 꾸미는 말을 덧댄 화려한 표현이나 억지로 꾸며 쓴 문장은 피합니다. 오히려 읽기를 방해하는 군더더기가 될 공산이 큩니다. 우리는 전문작가가 아닙니다. 단순 단단 단아하게 씁니다.⁹⁾

8) 글 읽는 독자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앞선 기록부터 순서대로 꼼꼼히 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 기록을 처음 읽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철수 씨와 의논했다.’처럼 사회사업가만 아는 내용, 지나치게 축약 생략한 기록은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기술하거나, 해당하는 내용을 지난 기록에서 발췌 인용해 친절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9) ‘삼단 글쓰기’(32쪽) 참고

※ 서론-본론-결론 구성

이야기의 내용과 맥락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을 갖춥니다.

① 서론: 기록의 배경과 맥락 소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따위를 씁니다. 글의 주제를 소개하며 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간략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야기의 앞뒤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돋고, 앞으로 이어갈 내용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빈약하면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고, 읽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록과 관련한 앞선 기록의 내용을 인용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석 가족 24-16, 큰엄마, 김장 언제 해요?

직원에게 영석 씨가 묻는다.

“큰엄마 김장 언제 해요?”

지난 추석 큰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을 만났을 때 11월에 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가족의 일에 영석 씨가 함께하면서 무언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장이야말로 참 좋은 구실이었다. 가족의 행사에 함께하며 영석 씨가 할 수 있는 만큼 거들고, 큰어머니의 애정 어린 김치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정겨운 모습을 상상했다.

“큰엄마께 전화해서 여쭤볼까요?”

“네!”

② 본론: 구체적인 내용 기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찌했거나, 사회사업가가 지원한 내용을 시간 순서 또는 중요도 순서로 씁니다.

보고 듣고 느낀 점, 대화, 행동, 변화 따위를 상세하게 적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건뿐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근거, 성찰도 함께 씁니다.

영석 씨가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큰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큰엄마.”

“영석이 잘 있었어? 별일 없고? 엄마도 잘 지내고?”

“네.”

“그래 다행이다. 영석이 오늘은 어떤 일로 큰엄마한테 전화했어?”

“김장 언제 해요?”

“김장? 글쎄, 잘 모르겠네.”

잘 모르시겠다는 큰어머니의 말에 다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영석 씨가 직원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낸다.

“안녕하세요. 영석 씨 드는 전담 직원 이승학입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전화로 인사드렸지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 미처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해서, 이번에 김장하신다는 이야기 전해 듣고 영석 씨, 미용 씨와 함께 찾아뵈면 어떨까 싶었어요. 영석 씨랑 미용 씨도 큰어머니도 김장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김장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뭘 도와줘요. 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어른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김장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지라도 가족으로서 어떠한 역

할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요즘 영석 씨가 직접 밥도 지어 먹고, 반찬도 곧잘 해요. 미용 씨도 그렇고요. 작은 일이라도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요?” (중략)

③ 결론: 실천의 결과, 느낀 점 또는 요약

실천의 결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찌 되었는지 씁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당사자와 지역사회, 사회사업가의 소감이나 느낀 점, 성찰 따위를 씁니다.

그날의 실천을 되돌아보거나 다음을 기약하는 다짐, 이야기의 요약 정리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큰어머니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시제(時祭)가 제사인 줄로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몰랐다. 그렇지만 가족을 만나는 구실이 아무렵 어렵까. 가족의 일에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일 아니겠는가.

영석 씨와 함께 인터넷에서 시제를 찾아보니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라고 한다. 5대조까지 한 번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큰어머니 말씀처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가족 행사임이 틀림없었다. 영석 씨가 또 어떤 귀한 인연을 만날지, 별씨 기대된다.

- 신영석 사람살이 이야기(2024. 10. 30.)에서 발췌

2. 논리적인 글

사회사업 기록은 사회사업가라는 전문가의 실천 기록입니다. 사회사업을 공부한 사람의 기록이라면 근본을 밝혀 왜 그렇게 도왔는지, 그렇게 도운 근거는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논리적으로 씁니다.

충분히 논리적인 글이라면 얼마만큼은 문학작품처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글쓰기에서 힘주어야 할 부분은 화려한 문장도, 멋들어진 표현도 아닙니다. 의도 근거 성찰을 바탕으로 논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고 교감해서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말이든 글이든 원리는 같다. 언어로 감정을 건드리거나 이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思惟) 능력에 기대어 소통 하려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 논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효과적으로 논증하면 생각이 달라도 소통할 수 있고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생각의 길, 2015)

3. 쉬운 글, 바른 글, 간결한 글¹⁰⁾

쉽게 씁니다.

누가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를 자세히 풀어 쓰거나 쉬운 말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려운 말이 권력이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약자의 곁에서 지내는 사회사업가의 말과 글이 어려울 리 없습니다. 쉽고 만만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씁니다.

차별 편견 혐오 무시 따위를 담은 용어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은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내가 쓰거나 듣는 말이 내 생각과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릇된 생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 말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사업가가 사용하는 용어는 그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용어는 사회사업가의 실천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고스란히 우리 현장의 실천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글쓰기』(김세진, 구슬꿰는실, 2022)

10) 글쓰기 방법 3(26쪽) 참고

간결하게 씁니다.

되도록 한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담습니다¹¹⁾. 접속사로 연결된 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읽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글을 쓰는 대원칙이었다. 멎을 부리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문장구조도 단순했다.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단문을 선호했다. 수식어도 최대한 줄였다. 수식어가 여기저기에 걸리면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면 어려워진다. 간결 할수록 명확하고 매끄러워진다. 『대통령의 글쓰기』(강원국, 메디치미디어, 2024)

11) 단문(單文).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문장은 크게 주어와 서술어, 달리 표현하면 주부(主部)와 서술부(敍述部)로 이루어지므로 곧 주술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술구성이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단문이다. 문장 속에 다시 작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주술구성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복문과 대립되는 개념이 곧 단문이다.

단문 중 가장 간단한 구조는 주어 하나와 서술어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여기에 목적 어나 보어 등이 덧붙을 수 있다. 즉, “눈이 온다.”나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다.”도 단문이다. “아이들은 눈을 좋아한다.”나 “대구는 항구가 아니다.”, “아우는 등산을 낙으로 삼는다.”도 단문이다. 그리고 이들에 다시 관형어나 부사어가 덧붙여도 단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얀 눈이 곱게 내린다.”나 “저 아이들이 눈을 훨씬 더 좋아한다.” 등도 모두 단문인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4.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돋보이는 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주인공인 글을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글을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랑을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씁니다. 당사자가 이렇게나 잘 해냈다고, 지역사회가 이처럼 정겨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씁니다.

당사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지역사회를 매정한 곳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혹 지역사회가 당사자를 외면 배제 차별하더라도, 이를 강조하거나 아쉬운 속내를 내비치지 않습니다. 비록 사회사업가로서 아쉬울지라도, 안타깝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당사자가 발전하기, 훗날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함께 하길 바라며 그 가능성은 봅니다.

문제와 약점을 외면하고 강점과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터 끌처럼 보인다면, 더 자세히 보고 더 오래 봅니다.¹²⁾

12) 반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돋보이지 않는 일'은 기록하기 꺼립니다. 애써 시선을 감추려 해도 당사자가 겪는 문제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못 하는 일, 지역사회가 외면한 일, 직원 가족들레 사람 지역사회와 겪는 불화와 갈등, 도전적 행동, 수치스러운 일, 남에게 피해를 준 일, 남들에게 눈총받은 일, 창피한 일, 어른답지 못한 일…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자는 건 아닙니다. 둘지만 기록하지 않을 뿐입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앞서 세운 기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사회사업답게 도왔는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도왔는지, 당사자를 문제 있는 사람, 약자로 보이게 하지 않았는지, 당사자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글인지.

성찰하며 쓰고, 다시 읽으며 되돌아봅니다.

※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돋보이는 표현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글로 표현할 때,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일의 주인이 사회사업가인가, 당사자¹³⁾인가.)

예컨대, 어버이날에 당사자가 자식 노릇 하도록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게 제안한 일을 기술한다면,

① 직원이 철수 씨에게 부모님께 어버이날 안부 전화하면 어떨지 제안했다.

② 철수 씨에게 부모님께 어버이날 안부 전화하면 어떨지 제안했다. 철수 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직접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①번에서는 직원이 철수 씨에게 제안한 일만 드러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돋보이려면 사회사업가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의 결과로써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찌했는지를 씁니다.

때로는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예컨대, 당사자를 대신해 둘레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상황을 기술한다면,

① 철수 씨를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② 철수 씨를 대신해서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사회사업가가 ②번의 의미로 인사했더라도, ①번처럼 쓰면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자칫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사회사업가의 일을 도와주신 것에 감사 인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기술합니다.¹⁴⁾

13) 『복지요결』 ‘당사자’ 참고.

14) 실제와 다르게 꾸며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기록하자는 겁니다.

글쓰기 방법

글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문 작가도 아니고, 사회사업 공부는 열심이어도 글쓰기는 공부해 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긴 글을 써 볼 경험은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기록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의 처지와 역량, 한계를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멋들어진 문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바르게, 사회사업답게 씁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궁리합니다.

글쓰기 방법 1. 공부하고 쓰기

‘알아야 면장(免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야만 눈 앞을 가리는 벽을 피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게 없거나 부족하면 한 문장 써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사업 글쓰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공부는 ‘사회사업 이론(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과 ‘어휘력’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책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생각과 느낌이 말이 되고 이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 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고 듣고 겪었더라도, 그것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글로 옮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말과 행동에서, 둘레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사업 가치를 이해하고 발견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혹 어떤 일에서 사회사업 의미를 발견했더라도 이를 표현할 적절한 어휘를 모른다면 이 또한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이든 영어든, 자주 쓰는 단어 몇백 개와 몇 가지 형태의 문장 만 잘 구사하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정치적 현안이나 자연과학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글로 쓰라고 하면 더 어려워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견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어휘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뭘 몰라서 말도 못 하고 글도 못 쓰는 것이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생각의 길, 2015)

사회사업 글쓰기를 위한 가장 좋은 공부는 ‘독서’입니다. 어떤 책이든 좋지만, 사회사업 관련 책을 읽는다면 사회사업 공부와 어휘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글쓰기는 따로 강의를 들어가며 배울 일이 아닙니다. 독서야말로 어쩌면 유일하고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글쓰기 방법 2. 많이 읽고 많이 쓰기

쓰기가 달리기라면, 읽기는 걷기입니다. 세상에 걷기 전부터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 하며 다리의 근육을 키워야 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지구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직접 뛰어 보면서 발 딛는 법, 팔의 움직임, 시선 따위도 체득해야 비로소 잘 뛰게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로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워야 하고, 책과 문헌에서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야 하며, 많이 쓰면서 글쓰기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철칙으로 아래 두 가지를 꼽습니다.

읽지 않으면 잘 쓸 수 없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습니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됩니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시자 어머니가 묻는다. “빨래은 개었니?”

위 문장은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가 객체인 아들보다 높으므로 아들을 높이면 안 된다.’, ‘조사 [-은]은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붙고,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는]을 쓴다.’라는 어문규범을 따져보고 알게 되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당연히 ‘나오시면’ 안 되고, 빨래‘은’은 입에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글이 잘못됐거나 어색하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처럼, 오랜 시간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서 우리 몸에 체화(體化)된 겁니다. 이는 오로지 많이 읽고 많이 써야만 가능합니다.

글쓰기 방법 3. 쉽게 쓰기, 바르게 쓰기, 간결하게 쓰기¹⁵⁾

쉽게 씁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를 피합니다.¹⁶⁾ 대신 할 말이 마땅치 않거나 명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꼭 써야 한다면 쉬운 말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버스에 탑승(搭乘)해 자리에 착석(着席)했다. 지금 출발하면 약 5분 정도 소요(所要)된다.

→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지금 출발하면 5분 정도 걸린다.

가급적(可及的) 조속(早速)한 시일(時日) 내(內)에 피드백(feedback)을 받았으면 좋겠다.

→ 되도록 빠른 날 안으로 응답/화답/회신/대답/의견/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래, 설거지, 청소 등(等) 가사(家事)는 자주적(自主的)으로 했으면 한다.

→ 빨래, 설거지, 청소 따위/같은 집안일은 스스로 했으면 한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거나 나의 지식을 뿐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굳이 어려운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사업가의 글을 읽는 이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15) 붙임『우리말글』 참고

16) 모든 단어를 순우리말로 바꿔쓰자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쓰자는 겁니다.

바르게 씁니다.

우리말답게 씁니다. 외래어나 한자어, 일본어, 지나친 번역투, 억지 피동형, 불필요한 조사의 남용 따위를 가려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문장이 부자연스럽고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읽기를 방해합니다.

맞춤법은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훈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맞춤법 오류를 제법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program) → 사업, 활동

만땅(滿(まん)タン) → 가득, 가득 채움, 많이

엥꼬(えんこ) → 바닥, 떨어짐, 없음

입장(立場, たちば) → 처지, 상황, 견해, 생각, 관점, 의견, 태도, 형편

~통해 / 통한 / 통하여 →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대신합니다.

예1. 사업을 통해 복지를 이루다. → 사업으로 복지를 이루다.

예2. 적절한 관리를 통해 달성하다. → 적절히 관리해 달성하다.

-지다(억지 피동형) → 능동형으로 씁니다.

예1. 보여지다 → 보인다

예2. 고쳐져야 한다 → 고쳐야 한다

예3. 손으로 만들어진 → 손으로 만든

예4. 뒤집어지다 → 뒤집히다

조사 ‘의’ → 꼭 필요하지 않다면 빼거나 다른 말로 대신합니다.

예1. 사회사업의 개념 → 사회사업 개념

예2. 나의 살던 고향은 → 내가 살던 고향은

예3. 너의 것 → 네 것

쓰임이 바르지 않은 용어도 살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본디 가진바 뜻과 쓰임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고민 → 궁리 생각 걱정 숙고 숙려 성찰 사유 연구 회의 고뇌 탐구 검토….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무얼 먹을지 고민이야.”라고 쓸 때,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울’ 정도의 일인지 살펴 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점심으로 무얼 먹을지 생각/궁리하는 중이야.”같이 적당한 다른 말로 씁니다.

‘틀리다’와 ‘다르다’

“난 너랑 틀려.” → “난 너랑 달라.”

“예전이랑 말이 틀리다?” → “예전이랑 말이 다르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이고,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걸 ‘틀리다’ 하면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자칫 판단·비난·책망·탓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밖에 뜻을 쉽게 혼동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잊다/잃다, 가르치다/가리키다, 들리다/들르다, 적다/작다, 많다/크다, ~로서/~로써, 드러내다/들어내다, 벌이다/벌리다, 때우다/떼우다, 꿰다/끼우다, 줘여 주다/줘여 주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는 특히 잘못 쓰기 쉽습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그 쓰임에 확신이 없다면 국어사전에서 뜻이나 예문을 살펴봅니다. 헛갈리기 쉬운 단어는 어휘 노트를 만들어 기억해도 좋습니다.

글쓰기 방법 4. 다듬어 쓰기

영화로도 제작된 유명 동화『스튜어트 리틀』을 쓴 미국의 동화 작가 E. B. 화이트(Elwyn Brooks White)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로 글 다듬기(퇴고¹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노인과 바다』의 저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도 “어떤 글이든 초고는 형편없다.”라며 다듬지 않은 글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헤밍웨이는『노인과 바다』를 무려 2년 동안 200번 넘게 퇴고했다고 합니다.

일필휘지(一筆揮之)¹⁸⁾로 쓴 글도, 여러 날 숙고해가며 쓴 글도 형편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잘 썼다고 생각한 글도 며칠 뒤 다시 읽으면 누가 볼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서로 호응하지 않는 주어와 서술어, 불필요한 수식어, 쓸데없이 긴 문장,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를 어떤 이유나 근거, 띄어쓰기나 맞춤법 오류 따위가 다시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썼다고?”

17) 퇴고(推敲):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또는 그런 일.

18) 글씨를 단숨에 써 내림.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써 내려간 글씨나 글을 말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능력입니다만,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일필휘지로 마무리 한 글은 더 좋은 글이 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 다듬기 네 가지 방법

첫째, 소리 내 읽습니다.

읽으며 숨이 차거나 ‘마침표가 언제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긴 문장입니다. ‘~하고, ~해서, ~했는데, ~했기에’ 따위 연결 어미가 반복되는 문장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 문장은 단문으로 나누거나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어 짧게 씁니다. 문장이 술술 읽히지 않거나 의미가 대변에 파악되지 않는다면 문장구조(주어 서술어 호응)나 평소에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를 쓰진 않았는지 살핍니다.

둘째, 수시로 고쳐 씁니다.

퇴고는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고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그려는 편이 좋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처음 정한 제목에서 내용이 벗어나는 때도 있고, 제목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글 주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글 쓰는 중간중간 내 글을 다시 읽어 봅니다. A4 한 장짜리 글은 고치거나 다시 쓰기 쉽지만, 서너 장이 넘어가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한 장 정도 쓰면 처음으로 돌아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불필요한 곁가지는 없는지,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핍니다.

셋째, 시간을 두고 다시 읽습니다.

수시로 다듬은 글도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다시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글을 썼다면, 다음 날 한 번 더 읽어 보고 출력합니다.

잘 썼다고 생각한 글이 새롭게 보입니다. 어색한 문장이나 오타 따위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넷째, 동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쓴 글을 여러 차례 다시 읽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겹기도 하고, 글쓴이 스스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나 오탏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변 동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동료에게 부탁하기 어렵다면 선배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일 또한 귀한 공부가 됩니다. 문장이 어색하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 이유와 근거를 찾으며 공부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삼단(단순 · 단아 · 단단) 글쓰기

1. 맞춤법에 맞게 씁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은 읽고자 하는 마음마저 달아나게 합니다.
2.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씁니다. 간결해야 의미가 뚜렷합니다.
3. 주어와 서술어는 가까이 둡니다. 멀어질수록 의미가 헷갈립니다.
4. 쉬운 우리말로 씁니다. 어려운 말은 이해가 어려울뿐더러, 저자와 독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5. 한 문단에 같은 단어를 세 번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꼭 써야 한다면 의미가 같은 다른 말로 씁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자칫 성의 없게 쓴 글로 보입니다. 단,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6. ‘~라고 생각한다’. ‘~인 것 같다’ 하는 표현은 글쓴이의 주장에 확신이 없는 느낌을 줍니다. ‘~이다.’, ‘~했다.’로 씁니다.
7. 동사를 쪼개 쓰지 않습니다. (교육을 했다 → 교육했다, 인사를 했다 → 인사했다, 마감을 했다 → 마감했다……) 되도록 짧게 씁니다.
8. 불필요한 조사(특히 ‘-의’)는 삼갑니다. 조사를 많이 사용하면 문장이 장황해지고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우리 국민의 사상은 참으로 위대하다 → 우리 국민은 위대한 사상을 가졌다.)
9. 담백하게 씁니다.

“너무 기교를 부리지 마라. 화려한 글은 소화하기 힘들며 대개는 건강에 나쁘고, 가끔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 -E. B. 화이트
10. 과장된 강조 표현은 삼갑니다. (정말, 진짜로, 솔직히,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말은 거짓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기록 7문답

1. 분량이 많아야 좋은 글인가요?

분량 그 자체가 글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의 분량과 기록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긴 글일수록 좋은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¹⁹⁾

글을 길게 쓰려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야기,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이야기가 풍성해야만 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A4용지 반 장짜리 글에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 불어 산 이야기와 사회사업가의 의도 근거 성찰을 모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개조식으로 쓰거나 합축 축약 생략하는 것인데, 쉽게 쓰는 사회사업 기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 의도 근거 성찰이 하나의 기록에 모두 담겨야 하나요?

의도 근거 성찰이 하나의 기록에 모두 담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사회사업가가 의도를 담아 제안했을 수 있고, 다른 날엔 의도와 실천의 근거가, 어떤 날엔 실천의 결과와 성찰이 있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한 당사자를 꾸준히 도운 기록을 모았을 때 의도와 근거 성찰이 고르게 담겨 있다면 좋은 기록입니다.

19) 글의 분량이 많다는 것은 담긴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글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분량을 늘리려 장황하게 쓰는 것은 삼갑니다.

3. 맞춤법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우리말 맞춤법,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조차 정확히 모르는 맞춤법이나 어문 규정이 많습니다. 시간 들여 맞춤법을 공부하고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처지와 역량, 한계와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훈글’ 프로그램의 맞춤법 검사를 활용하길 권합니다.

글을 쓸 때는 가장 먼저 훈글 프로그램으로 씁니다.²⁰⁾ 글 쓰며 빨간색 또는 파란색 밑줄이 있는 부분을 잘 살피고, 글쓰기를 마친 뒤에는 ‘F8’ 키를 눌러 전체 글을 두고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얼마만큼은 맞춤법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외래어(영어, 일본어, 한자어 따위)는 쓰면 안 되나요?

‘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씁니다. 아무리 외국어가 흔한 시대라 해도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말이 마땅치 않거나 명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꼭 써야 한다면 쉬운 말로 설명을 덧붙입니다.²¹⁾

5. 당사자의 이야기와 사회사업가의 실천 가운데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복지요결』에서는 사회사업 기록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그리고 이를 거둔 사회사업가의 실천을 아우릅니다. 곧, 두 가지 모두 담겨 있어야 비로소 ‘사회사업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느 날은 당사자의 이야기가, 다른 날은 지역사회 사

20) 훗날 기록을 엮어 정합성 평가서를 만들 때를 생각해, 작성한 훈글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두길 권합니다.

21)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팔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람살이 이야기가, 또 어느 때는 사회사업가의 성찰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한 해 기록을 모았을 때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 살이 이야기, 사회사업 이야기가 고루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6. 반드시 표준어로만 써야 하나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는 기준에 미루어 본다면, 많은 사람이 두루 쓰는 말인 표준어로 쓰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당사자나 둘 레 사람의 말씨 따위를 강조하거나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함이라면 사투리나 구어문을 그대로 옮겨 쓸 수도 있겠습니다.

7.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객관적(客觀的)이라는 말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客, 손님)의 시선에서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생각이나 성찰은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쓰는 글이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이렇게 쓰는 글은 사회사업 기록이 아닙니다. 관찰 일지입니다.

사회사업 기록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도운 일을 사회사업가의 의도와 근거, 성찰을 담아 기록하는 작위적 실천이자 지극히 주관적(主觀的)인 글입니다.

우리
말글²²⁾

18. 1

22) 사회복지정보원 한덕연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부록으로 소개합니다.

말과 글을 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2018년 1월 22일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02-822-2643

1. 강조 표현

1) 너무, 너무너무 → 무척, 매우, 아주, 대단히, 참, 참으로, 정말

'너무, 너무너무'는 정도를 지나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긍정하는 의미라면 '너무' 대신에 '무척, 매우, 아주, 대단히, 참, 참으로, 정말' 이런 부사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굉장히'는 크고 훌륭하다는 뜻이니 '크기'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꾸미는 데 씁니다.

너무 멋있어요.(재밌어요. 행복해요...) → 정말 멋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 참~ 정말, 아주 맛있어요.

진짜 안전할까? → 과연 안전할까?

진짜 복지인 → 진정한 복지인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일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다, 가까이하기 어렵다, 사귀자는 말을 못하겠다, 질투를 느낀다, 묘사·형용하기 어렵다, 정신 차릴 수 없다 …

2) 되게

되게 (디게, 대개) → 아주, 몹시, 무척, 매우, 대단히, 참, 정말

되게 좋아요 → 아주 좋아요

'되게'와 '진짜'는 어른이 쓰기에는 적합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유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3) 강조표현의 남용

'정말, 굉장히, 진짜로, 솔직히, 사실은, 너무' - 이런 표현을 자주 쓰면 가벼워 보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별것 아니요 가짜요 거짓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을지 모릅니다.

2. 틀리다

판단·비난·책망·탓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격이 너무 틀리다 → 성격이 매우 다르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때와는 많이 틀려 → 아주 달라

용도가 틀리다. 문화가 틀리다. → 용도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틀리다 : 그르다, 어긋나다, 잘못되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답이 아니다.

다르다 : 어떤 것과 같지 않다.

3. ~다라고, ~다라는

‘라고’나 ‘라는’은 직접 인용에 씁니다. 간접 인용에는 어색합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해 보고 싶었습니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차이가 있음을, 있다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지켰다. →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후원하겠다던 약속을, 후원 약속을 지켰다.

결국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까? →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회사업가는 가난하다라는 주장 → 가난하다는 주장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라는 선거 공약 →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

철수는 “사회사업은 발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철수는 “사회사업은 발로 해야 한다.”하고 주장했다. (직접 인용) = 철수는 사회사업은 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 인용)

직접 인용절 다음에 ‘라고’를 쓸 때는 바로 붙여 쓰고, ‘하고’를 쓸 때는 한 칸 띄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 글에는 직접 인용절 다음에 한 칸 띄고 ‘하고, 하니, 하거늘’ 같이 ‘하고’만 썼다고 합니다.

인용절 다음에 ‘라고’를 붙이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품위 없는 말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직접 인용절에도 ‘라고’를 붙여 쓰기를 꺼립니다.

4. 갖다, 가지다

~하는 시간을 가지다. → ~하다.

모임을 갖는다. → 모인다.

평가회를 가졌다. → 평가회를 했다. 열었다. 개최했다. 평가했다.

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 팀장들이 모여

효력을 가진다. → 효력이 있다.

자유를 갖는다. → 자유가 있다.

관계를 갖다. → 관계하다, 관계를 맺다.

공원에서 홍보 행사를 가졌다. → 홍보했다.

공부방 활동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공부방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공부방 활동을 설명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지금부터 발표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표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읍시다.

5. 수동태를 직역한 듯한 표현

공부방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 공부방을 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명서가 교부되면 → 복지부가 증명서를 교부하면

되어지다 → 되다 → 하다

단순 업무에 배치되어진 자원봉사자 → 배치된 배치한 자원봉사자

~되어야 합니다.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해야 합니다. ~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요구된다. 있어야 한다. → ~해야 한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된다. 있어야 한다. →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시정할 필요가 있다, 시정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적절한 시책이다.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사후관리를 要要하는 →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속적인 개입을 요하는 일 → 꾸준히 개입해야 하는 일

~을 필요로 한다. (타동사 need를 직역) → ~이 필요하다. (우리말 형용사)
A need B → A에게/A는 B가 필요하다. A에게 필요한 건 B다. (우리말)

생계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 상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성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 → 사회사업가가 도와야 할 사람들

맡겨진 일, 주어진 일 → 맡은 일, 시킨 일
복지관에서 실시되어지는 프로그램 → 실시되는 → (실시)하는
놀이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행동 → 고칠 수 있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 하루 빨리·바빠 고쳐야 한다.
담당자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
→ 권한을 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제공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진 규정에 의해 교체됩니다. → 이사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 →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찬스가 주어지면 → 기회를 얻으면
해결중심면접은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6. 뜻을 혼동하여 잘못 쓰는 말

- 1) 접수하다, 접수시키다 : 제출하다. 내다. 넣다. 보내다. 주다
(신청하는 사람) 신청서를 접수하다 → 신청서를 제출하다.
- 2) 자문하다 = 여쭙다. 묻다. 조언을 구하다. 의논하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다. 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
자문해 주다 → 조언해 주다
※ 자문을 받거나 자문에 응하는 쪽이 전문가입니다.
- 3) 회장의 결제를 받다 → 결재를 받다. 재가를 받다
공문서에 결재하다. 결재 서류
대금을 결제하다. 카드 결제

4) 위탁운영 : 수탁운영

OO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 수탁운영 (복지관은 주로 민간 법인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즉 수탁하여 운영하지요.)

5) 쫓다 : 쫓다

쫓다 = 추격하다. 몰아내다. 물리치다

쫓다 = 추구하다. 따르다.

예 : 명령, 선례, 관습, 남의 의견, 국민의 뜻, 하나님의 뜻, 유언, 명예, 행 복, 이상 따위를 쫓아…

6) 때가 이르다 : 속도가 빠르다

일찍 정한 때보다 앞서 ↔ 늦게 : 빨리 ↔ 천천히

이르면 주말쯤, 일러야 내일,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 이른 시일내에? →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멀지 않은 때 에, 곧, 서둘러

7) 작다 ↔ 크다 : 적다 ↔ 많다

8) 잊다, 잊어버리다 forget : 잊다, 잊어버리다 lose

9) 들어내다(들어서 밖으로 옮기다, 제거하다) : 드러내다(보이게 하다, 밝히다)

10) 벌이다 (늘어놓다. 차리다. 시작하다) : 벌리다 (넓히다. 펴다. 열다)

11) 가르치다 teach : 가리키다 point, indicate, refer to

12) ~으로서 ~로서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as ~

~으로써 ~로써 :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 by ~

'~로, ~으로' = ' ~으로서 ~로서' + ' ~으로써 ~로써'

~함으로 (수단) : ~하므로 (이유)

13) 와중에

명상하는 와중에 → 명상하는 도중에, 명상하는 중에, 명상하다가

※ '와중'은 소용돌이치듯 시끄럽거나 어수선하거나 복잡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14) 차별화된 서비스 → 나은 서비스, 색다른·특별한·개성 있는 서비스

15) 우연찮게(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 우연하게, 우연히

16) 조출한 선물, 조출한 행사... → 작은 선물, 간소한 행사

조출하다 = 아담하고 깨끗하다. 깔끔하고 얌전하다. 말쑥하고 맵시 있다.
그러므로 제 것을 조출하다고 하면 자화자찬이 됩니다.

17)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 인재를 적절한 자리 알맞은 곳에 배치하다.

※ 적재적소는 ‘알맞은 재목을 알맞은 자리에’라는 뜻입니다.

18) 인수인계 받다 → 인계인수하다. 주고받다.

인계하다 = 넘겨준다. 인수하다 = 넘겨받다.

인수인계는 물려받고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넘겨받는 것, 둘 다 포함합니다.

19) 일정 정도 → 어느 정도, 얼마쯤, 꽤, 상당히, 상당한

사회사업가의 인품은 서비스 효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다. →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 얼마쯤 책임이 있다. 책임이 크다.

7. 중복 표현

1)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결연을 맺다 → 결연하다. 인연을 맺다.

결실을 맺다. → 결실하다. 열매를 맺다.

2) 중요시 여기다 → 중시하다, 중요시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3) 접수받다, 인수받다 → 접수하다, 인수하다, 받다, 넘겨받다.

4) 제공해 주다 → 제공하다

5) 우수상을 수상하다 → 우수상을 받다.

6) 가능할 수 있다 → 가능하다

지속가능할 수 있는 → 지속 가능한, 지속할 수 있는

7) 함께 동행/동참/공존하다 → 동행/동참/공존하다.

8)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 솔선수범해야 한다.

※ 솔선수범하다 = 남보다 앞서 행하여 본을 보여 주다

9) 현안문제 → 현안, 걸린 문제

10) 소위 말하는 → 소위, 이른바

11) 평소 때보다 → 평소보다

12) 매년마다 → 매년 / 매주 월요일마다 → 매주 월요일 / 월요일마다

13) 과반수 이상 → 과반수

14) 되어지다 → 되다 | 보여진다 → 보인다

15) 안정화시키다 → 안정화하다. 안정시키다. 활성화시키다→활성화하다. 강화시키다 → 강화하다. 단순화시키다 → 단순화하다

16) ~이후부터 ~이전까지 / ~한 후부터 ~하기 전까지

→ ~이후 ~이전 / ~부터 ~까지 / ~한 후 ~하기 전 / 하기까지

8. 시키다 =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하게 하다

만약 남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금지시키다, 교육시키다, 개선시키다, 거짓말시키다, 성공시키다, 소개시키다, 억제시키다, 연장시키다, 접수시키다, 주차시키다, 차단시키다, 축소시키다, 확대시키다, 제외시키다, 격리시키다

→ 금지하다, 교육하다, 개선하다, 거짓말하다, 성공하다, 소개하다, 억제하다, 연장하다, 제출하다, 주차하다, 차단하다, 축소하다, 확대하다, 제외하다, 격리하다

환경을 훼손시키다. 파괴시킨다 → 훼손하다. 파괴하다

9. 고민하다 = 고통스럽게 변민하다, 괴로워하고 애태우다.

고민하다 → 숙고|숙려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사고|사유|사색하다. 검토하다. 걱정|염려하다. 반성하다. 성찰하다. 살피다. 헤아리다. 궁리하다. 마음 쓰다. 애쓰다. 회의하다…

고민 → 깊은·진지한 생각, 고려, 성찰, 사유·사색·사고, 궁리, 연구, 반성, 회의, 고뇌, 걱정, 숙고|숙려, 탐구

생각하다 → 여기다, 판단하다, 상상하다, 궁리하다, 고뇌하다, 꿈꾸다, 느끼다, 추측하다, 짐작하다, 헤아리다, 염려하다, 우려하다, 의아해하다, 의심하다, 검토하다, 성찰하다, 구상하다, 믿다, 확신하다, 추구하다, 염두에 두다…

쳐다보다 = 올려다보다 → 바라보다, 내려다보다, 들여다보다, 내다보다, 노려보다, 흡쳐보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살펴보다…

10. 여러 가지

- 1) 바램, 바래요, 바랬는데… (바래다 = 색이 변하다, 배웅하다) → 바람†, 바라요, 바랐는데
- 2) 생각컨대 → 생각건대 / 생각치 못한 → 생각지 못한
'ㄱ, ㅅ, ㅂ' 다음에서는 '하'를 생략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든 되도록 준말을 쓰지 말고 본말을 쓰십시오.
- 3) 삼가하다 → 삼가다. 삼가시기 바랍니다.
- 4) 몇일 → 며칠, 몇 월 며칠, 몇 날 며칠
- 5)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이’로 쓰는 단어 : 깨끗이, 따뜻이, 뚜렷이, 지긋이, 반듯이, 느긋이, 벼젓이 (대개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말)
* 곰곰이, 꼼꼼히
- 6) 지속 가능한 → 지속할 수 있는
- 7) 역할 → 역할役割 → 구실, 노릇, 할 일, 둇, 일, 과업
- 8) 웬지 → 웬지 (왜인지)
- 9) 우뢰와 같은 소리 → 우레와 같은 소리
- 10) 효과가 금새 나타나지 않는다. → 금세 (←금시에)
- 11) 설레이다 → 설레다. 설레어(설레), 설레니, 설레는, 설레어서, 설렌다, 설렘
목메이다 → 목메다. 목메어 올다, 목멘 소리로
해매이다 → 해매다.
- 12) 들려 : 들리
지나는 길에 들려 차 한 잔 하고 가십시오. → 들리
'들리'는 '들르다'의 활용이고, '들려'는 '들리다'의 활용입니다.
- 13) 예요 : 예요
것이예요 → 것이예요, 아니예요 → 아니예요, 아녜요
~이예요 → ~이예요. ~이어요. ~예요. ~여요- 12 -

14) 되야 → 돼야, 되요 → 돼요 (돼=해 | 되=하)

잘 되야 할 텐데 → 잘 되어야/돼야 할 텐데

내일까지 하시면 되요. 돼죠. → 되어요. 돼요. 되지요. 되죠.

15) 께요 → 계요

할께요, 께예요 → 할계요, 거예요, 해 줄게요, 기다릴게요, 볼게요.

16) 여러분들 → 여러분 / 우리들, 저희들 → 우리, 저희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므로 이미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 서로

서로가 서로를 → 서로 / 스스로가, 스스로를 → 스스로 / 모두가 모두를 → 모두

그대로의, 그대로를, 나름대로의 → 그대로, 나름대로 ('서로, 스스로, 모두' 이 세 가지는 본디 부사라 조사를 붙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8) 보다, 보다 더 → 더

보다 나은 방법 → 더 나은 방법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더 구체적으로

19) 부정

① 명사 : ~이지 않다 → ~이 아니다

지나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동사를 부정할 때 ‘~지 않는다’고 하고, 형용사를 부정할 때 ‘~지 않다’고 합니다. (예: 주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이다’의 부정 서술은 ‘~이지 않다’가 아니고, ‘~가 아니다, ~이 아니다’입니다. (예: 직원이지 않다 → 직원이 아니다.)

② 형용사 : '~지 않다. ~지 아니하다' 높지 않다. 편치 않다.

안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안 효율적이다 →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동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안'이나 '아니' 또는 '못'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20)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 동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십시오.

23)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해 주십시오.
* 지금 부탁하지, 왜 부탁드리겠다 하는지요? 언제 부탁할 계획인지요?

24) 대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쭙겠습니다. → 여쭙고 싶은 소원이나 여쭙겠다는 계획을 말하기보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세요.

25)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이 되겠습니다. → ~입니다. 저기가 바로 상담실이 되겠습니다. → (장차 그렇게 될 예정이거나, 가능성은 예측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담실이라면) 상담실입니다.

참가비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 30만 원입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장님 되시겠습니다. → 국장님입니다.

~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 ~이 아닙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사실이나 과거의 일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27)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28) ~에 다름 아니다 → ~와 다름없다. ~에 틀림없다 ~이 틀림없다.

상거래에 다름 아니다. → 상거래와 다름없다.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틀림없이 중요한 일이다.

29)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직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직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30) 영향력을 끼친다. → 영향을 끼친다. 영향력을 지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31) 에 있어서 / ~에 있어서의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 제공할 때 | 제공하는 데 주의할 점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원칙 →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 대상 선정 원칙

방법론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 방법이 다르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생태 관점은 매우 유용하다 → 실천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가 곧 공부다 → 아이들에게는 / 아이들은

공부방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부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2) 데 : 곳,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으로 쓸 때는 띄어 씁니다.

아이들이 받는데 익숙해져서 → 받는 데

사회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높이는 데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보호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강화하는 데

아이 한 명이 자라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 자라는 데

33) 입장

→ 처지, 신분, 원칙, 방침, 의지, 주장, 요구, 견해, 관점, 생각, 뜻, 결심, 인식, 판단, 자세, 태도, 쪽, 편, 관계, 이익…

교수와 학생의 입장으로 만났습니다. → 교수 학생 관계로 |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회의를 하자는 입장과 그냥 피곤하니 자자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 회의를 하자는 의견과 피곤하니 그냥 자자는 의견이 대립~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 이용자가 보면, 이용자 쪽, 이용자 처지에서 보면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 부탁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처지에서는 관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다. → 처지·주장·견해·이익을 대변하다.

34) 지양

지양하고 → 중지하고. 버리고. 삼가고. 하지 않고, 그만두고, 줄이고, 고치고, 개선하고, 금지하고…

무책임한 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시중을 지양하며… → 지나치게 시중하지 않고…

35) 불이익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 손해 보지 않을까 불리해지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36) 물론 :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렇다는 의미인데, 그저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과연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러한지 살펴서 써야 합니다.

37) ~부터 시작?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 내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접수합니다.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 내일 정상화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 합니다.

내일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 내일 마감합니다. 내일까지 접수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작”은 하는 순간, 그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38) 동사를 쪼개지 않고 온전하게 쓰기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올 겁니다.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합니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 가입했습니다.

39) 바꿔 말하기 - 그러니까...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중간에 자기 말을 스스로 끊어 “그러니까...”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자꾸 바꿔 말하지 말고, 우선 한 문장을 끝내고 나서 필요하면 그때 보충하여 (혹은 다른 식으로) 설명하십시오.

11. 고맙다와 감사하다

감사한 일, 감사한 말씀 → 고마운 일, 고마운 말씀

감사하신 분 → 고마우신 분

‘고마운 일’은 그 일에 대한 나의 마음 또는 그 일 때문에 상대에게 느끼는 ‘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사한 일’은 ‘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미 그 일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신 분'은 그분께서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어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셨다면 그분은 고마우신 분이고, 나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라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감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감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참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인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사 행위를 치켜세우는 자화자찬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도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를 높이는 꼴입니다.

"감사합니다."가 "고맙습니다."보다 격식을 갖춘 인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나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이에는 "감사합니다." 해야 어울린다는 주장입니다.²³⁾ 뜻은 같은데 '고맙다'는 순우리말이고 '감사하다'는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행위입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어떠하다는 형용사이고,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동사입니다.

미안한 일과 사과한 일이 다르고, 미안한 사람과 사과한 사람도 다르지요. 고마운 일과 감사한 일이 다르고, 고마운 사람과 감사한 사람이 다른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와 '고맙다'는 형용사이고, '사과하다'와 '감사하다'는 동사입니다.

구분하여 쓰려고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때는 형용사 '고맙습니다.'를 쓰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행위를 말할 때는 동사 '감사합니다.'²⁴⁾

23) '미안하다.'와 '죄송합니다.': 같은 뜻의 형용사인데, '죄송합니다.'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높은 분께 사과할 때는 '미안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24) 감사드리다 → 감사하다.

를 씁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말이 고맙다는 뜻) → 감사합니다.

고마운 줄 안다, 고맙게 여긴다, 고마워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후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에 대해,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디 도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은 빼고) 정중히 부탁합시다. 도움 받은 후에는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짧게 한마디로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해야 할 대상을 가리켜 ‘감사한 일, 감사한 말씀, 감사하신 분’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데 스스로 높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거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손하게 하려고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므로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기도 꺼림칙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다’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라, 감사하세.’ 합니다.

12. 지나친 겸손, 모호한 표현

- 1) 좋은 것 같아요 → (이 표현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은 “좋아요”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같은 경우에는 → 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 저는, 제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 일본은, 일본의 경우는
- 3) ~하는 시간(기회, 여행, 세미나, 방학, 실습...)이 되다. → 그 시간(기회, 여행, 세미나, 방학, 실습...)에 ~하다.
- 4)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잘 누리시기/배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5) 지역복지 실무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순례·실습·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시간에 그 순례·실습·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복지 실무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 6)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순례를 통해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 7) ~할 수 있었습니다. → ~했습니다.

오늘 저의 광활 첫 단추를 풀 수 있었습니다. → 풀었습니다. 끼웠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풍성해지도록
- 여름학교를 통해 OO이와 소통할 수 있었고, OO이 어머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 소통했고, ~ 가까워졌습니다.
- 8) ~할 수 있는 사람(여러분, 우리, 복지인, 학과, 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기 바랍니다. ~하자, ~하고 싶다, ~하겠다.

저는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번 활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꿈·소망·욕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 돋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9) ~도록 합시다, ~도록 하겠습니다. → ~합시다, ~하겠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 갑시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겠습니다.

“~하도록 한다”는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는 뜻입니다.

10) ~기로 하겠습니다. →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작합니다. 마칩니다.

11)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면 좋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합시다. 하고 싶습니다.

12) 부분 → 점, 것

그런 부분… ‘거시기’와 마찬가지로 모호합니다. 점, 것으로 바꾸어 말하거나, ‘부분’이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하여 말하는 게 좋습니다.

13) 것들, ~들 : 복수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뚱뚱그려서 혹은 과장하여서 복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 뭐 : 이것저것 예시하여 나열할 때 이런 군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성실하다, 냉소적이다, 건방지다, 교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어떻든’도 이런 느낌을 주므로 삼가야 합니다.

좋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합니다.

꼭 집어 말하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부분”, “~것들” 이렇게 뚱뚱그려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겠다 말하지 않고 “~되어야 한다, ~이 요구된다, ~이 있어야 한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엇을 배웠다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 이야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배웠다는 건지 안 배웠다는 건지 못 배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고민했는지, 고민 결과 무엇을 얻었는지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소하겠다고 하지 않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식사하자고 하지 않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지 않고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합니다. 다시 오지 않더라도 죄책감은 없겠습니다.

‘~해야 한다. ~이다. ~하고 싶다. ~하려 한다.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이나 의지를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하지만 꼭 그렇다고 주장 또는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지나 소신은 없다는 듯 슬그머니 꽁무니를 사립니다. 생각의 내용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생각 한다. 생각을 한다.’는 행위에 부속시킴으로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피하려 합니다.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홍보했다고 하지 않고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홍보 효과에 자신이 없다는 듯, 홍보 효과에 대해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제3자가 해설하듯 남 말하듯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에두르거나 비켜갑니다.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 버립니다. 자신을 문장의 주어로 내세우지 않고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게 보일까 봐, 무례하게 보일까 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손한 말씨,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3. ~가 아닌 ~

‘~이 아닌 ~’ 이런 말과 글을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전에 해 온 활동 내용과 방식도 귀합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앞의 일을 부정하지 않고도 뒤의 일을 설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의 일을 부정하지 않고도 제 일을 설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14.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해 "단순히"라 하면 폄하 비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의 행위 또는 이전의 행위를 언급할 때 부사 "단순히"를 무척 꺼리고 조심합니다.

그 사람은 과연 '단순히' 그렇게 할까요? 그때는 과연 '단순히'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을 해아리는 '단순치 않은' 과정이 없었다 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에 대해 '단순히'라고 하기는 꺼림칙합니다.

15. 필요 없다

사람에 대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기를 꺼립니다. 피하려 합니다.

우리 옛글 옛 말에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 감히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않았을) 거라고… 사실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필요하다"를 찾아보니 '사람'에 대해 '필요하다'고 한 예문은 18개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 유감합니다.

사람에 대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쓸모 있다, 쓸모없다" 함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돋는 일을 주선하고,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로 부돋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려 합니다.

16. 요결에서 없앤 말, 바꾼 말

- 1) 비교 경쟁 전쟁에 관련된 말 : 최고, 최강, 전략, 전술, 작전, 도전…
- 2) 결언, 공작, 자연주의, 도모…
- 3) 가령 → 예를 들어
- 4) 감안하다 → 헤아리다. 고려하다. 살피다.
- 5) 가급적 →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되도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 6) 근 수도 있습니다. → ~ㄹ 수 있습니다. ‘도’를 많이 뺏습니다.
- 7) 보통사람 → 보통 사람 → 여느 사람
- 8) 보조동사는 띄어 썼습니다.
‘도와주다’와 ‘녹아들다’는 하나의 동사이므로 붙여 썼습니다. ‘나누어 주다’에서 ‘주다’는 보조동사이므로 띄어 썼습니다.
※ ‘함께하다’, ‘같이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같이/함께 했다.’의 ‘같이/함께’는 부사이므로 동사 ‘하다’와 띄어 씁니다.
- 9) 것
~ 것인지 → ‘~인지’ 또는 ‘~ 견지’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할 것인지 → 할지
~ 것을 → ‘~걸’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 것은 → ‘~건’으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 것이 → ‘~계’로 줄이거나 ‘것’을 다른 명사로 바꿨습니다.
‘것’이 들어간 곳을 모두 살펴서 고쳤습니다.
‘것’이 들어간 낱말을 없애거나, 다른 말로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하는 것 → ‘~하기, ~함’처럼 명사형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 10) 도모하다 → ‘이루다’ 따위로 바꾸거나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 11) 미명하에 → ~한다고, ~한답시고, 이름으로, 구실로, 평계로
- 12) 소고 → 작은 바람, 짧은 생각
- 13) 및 → 와, 과
- 14) 등 → 따위, 같이, 같은, 처럼
- 15) 받다

‘동사성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붙여 적습니다. : 사랑·후원·칭찬·존중·감사·상찬·추천·소개·관리받다.

- 16) 당하다

‘~당하다’는 명사에 붙여 적되, 동사성 명사가 아니어도 붙여 적습니다.
예: 고난당하다.

- 17) 때문과 까닭

~ 때문 … : ~이 원인 또는 이유, …은 결과 : ~는 명사 또는 동명사 형
~ 까닭 … : ~은 어떤 원인 또는 이유의 결과 : ~는 관형어 (형용사 형)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부탁하는 까닭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행
위가 바로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 =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그건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
하고 부탁하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김’의 결과·소산이지 원인·이
유가 아닙니다. → 참고 : [때문에?/최인호](#)

- 18) 역할 → 구실, 할 일, 과업, 봇, 일, 기능, 책임, 자리
- 19) 구실2 → 평계로 순화. 요결에서 ‘기회, 소재, 명분’을 썼습니다.
- 20) 만족해하다 → 만족하다 (동사: 흡족하게 여기다, 형용사: 마음에 흡족하다)
- 21) 독립적으로 → 따로, 따로따로
- 22) 우려 → 걱정
- 23) 세대 → ‘가구’나 ‘집’으로 순화
- 24) 명찰 → 이름표

25) 경우

→ 빼거나, 앞뒤 헤아려 다르게 쓰거나, ‘때, 일’ 따위로 바꿉니다.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 최선일 수도, 최선일 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 필요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보통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제공하기도 하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되는 일이
이용할 경우 → 이용한다면
준비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
라도’를 빼버립니다.
봉양 받을 경우 → 봉양 받는다면
대개의 경우 → 대개
하게 될 경우 → 하게 되면

26) ~의

~의 → ‘의’를 빼도 괜찮은 곳에서는 모두 뺏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람살이 → 지역사회 사람살이
지역사회의 공생성 → 지역사회 공생성

사회사업의 개념 → 사회사업 개념
자주·공생의 복지 → 자주·공생 복지, 자주·공생하는 복지

27) ~적

사회사업적 의미 → 사회사업 의미

28) 보통 → 여느, 으레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 여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보통 가정처럼 설을 쇠게 → 여느 가정처럼 설을 쇠게

29) 하였 → 했

하였습니다. → 했습니다.

30) ‘동안’은 띄어 쓰고, ‘간’은 붙여 씁니다.

3개월 동안 | 3개월간

31) 로 하여금 → 가

하도록 → 하게 | 도록 → 게

32) ~이요 → 이고

33) 또한, 역시 → 지우거나 ‘~도’로 조사를 바꿨습니다.

34) 또는 → ‘~이나’ 따위로 바꿨습니다.

35) 거니와 → 지우고 문맥에 따라 적당한 말로 바꿨습니다.

36) 한편, → 지웠습니다.

3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다. 기초하다. 토대하다.’를
추가했습니다. ‘바탕하다. 기반하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8) ‘~에 대해/대한’과 ‘~에 관해/관한’을 거의 다 털어냈습니다.

바른 글 좋은 글

2005년 3월 21일 황소옹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언론에서 글쓰기 경력 30년, 대학에서 글쓰기 지도 10년
황소옹 교수의 글쓰기 왕도 10조 강의

1. 왕도 10조

1) 제1조 짧게 쓴다.

긴 문장은 과감하게 끊자.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얘기만 담는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생각만 얘기하자. 군더더기를 없앤다. 수식어도 가급적 줄인다. 주어와 술어 사이는 짧을수록 좋다.

→ 복지요결 문장은 대개 짧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쓴 글에는 긴 문장이 있습니다. 빼도 되는 수식어가 아직도 보입니다. 더 다듬어야겠습니다.

2) 제2조 쉽게 쓴다.

어려운 문자, 고사성어, 영어, 한자, 외래어는 가급적 피한다. 고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속한 느낌을 준다. 비어, 속어, 유행어, 사투리, 인터넷 약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품위를 떨어뜨리고 천박한 인상을 준다.

→ 복지요결에서 한자와 영어를 모두 뺏습니다.

3) 제3조 담백하게 쓴다.

“김치 깍두기 같은 글을 써라.”

미문(美文)은 타락일 수도 있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감정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 담백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볼 때마다 다듬고 있습니다.

4) 제7조 같은 말 반복 사용을 피한다.

한 문장에서 동어를 두 번 이상 쓰지 말자. 동일 용어를 써야 한다면 동의 어로 바꾸는 게 좋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앞 문장에서 썼던 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의 말 역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외 : 강조 효과를 위한 반복)

→ 볼 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5) 제8조 논리적으로 쓴다.

논리의 모순이나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어와 구절,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서론 본론 결론이 유기적으로 논리에 맞게 전개되어야 바른 글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 논리,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6) 제10조 문단을 구분한다.

문단을 짧게 만들고 자주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문단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

→ 복지요결은 문단을 자주 나누고 문단 사이를 벌립니다.

2. 바른 글을 쓰려면

1) 버려야 할 악습

① 일본식 한자말

입장 → 처지, 형편, 생각, 태도, 주장 따위로 바꿔 써야 한다.

~에 다른 아니다 → ~와 다른 없다

~에 틀림없다 → 다른 말로 바꿔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야 한다.

② 영어식 표현

필요로 한다, 요구된다. → 필요하다

③ ‘역전앞’식 중복 표현

결실을 맺다, 순찰을 돌다 → 열매를 맺다, 순찰하다

부상을 입다 → 부상하다|다치다

주어진 여건, 남은 여생, 잔존해 있다 → 여건, 여생, 잔존하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이상, 완전히 근절하다, 이질감을 느끼다, 대강의 개요, 여러 가지
잡다한, 지나온 과거, 함께 공존하는, 매호마다, 접수받다…

‘때’를 불이기 좋아하는 습관 : 평소 때보다, 삼국시대 때에, 일제 강점기
때에, 농번기 때에 등에서 ‘때’는 불필요한 말이다.

④ ~화되다

‘화’는 한자로 化이고 그 뜻이 ‘되다’이므로 ‘~화되다’는 중복 표현이 명
백하다. 잘못된 것이다. ‘~화하다’로 고쳐 쓰도록 하자. 어떤 경우든 ‘화’
와 ‘되다’를 겹쳐 써서는 안 된다.

‘~화하다’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간
다는 뜻으로 쓰면 자동사, 무엇을 어떻게 되게 한다는 뜻으로 쓰면 타동
사. ‘우리 사회가 민주화했다’고 쓸 수도 있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했다’
고도 쓸 수 있다.

⑤ ‘시키다’식 습관

거짓말시키다, 야기시키다, 제외시키다, 구속시키다… :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하다’로 쓰자.

⑥ 억지 피동형

보여진다 → 보인다

뒤집어지다 → 뒤집히다

고쳐져야 한다 → 고쳐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 변해야 한다

손으로 만들어진 → 손으로 만든

서구어의 직역투라고 할 ‘~지다’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하고, 쓰지 않으려면 생각 자체를 피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꿔야 한다. 능동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행동의 주인공이 사물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 바 물주(物主) 구문에서 인주(人主) 구문으로 바꿔 써야 능동형 문장이 되고 그래야 우리말답게 되는 것이다.

2) 헷갈리는 유사어

① 다르다 : 틀리다

② 붙이다 : 부치다

③ 맞추다 : 맞히다

④ 일절 : 일체

⑤ 넘어 : 너머

⑥ 빠르다 : 이르다

⑦ 늘이다 : 늘리다

⑧ 벌이다 : 벌리다

⑨ 띠다 : 띠다

⑩ 째 : 채

⑪ 이 : 히

어간에 ‘하다’를 붙여 용언이 되는 경우는 ‘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로 적는다.

예외 1) 어간이 ㅅ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모두 ‘이’다. : 깨끗이, 빠듯이, 번듯이, 따뜻이, 뚜렷이, 벼젓이, 지긋이 등

예외 2) 깊숙이, 큼직이

⑫ 든 : 던

‘든’은 선택이나 조건, ‘던’은 시간과 관계있는 과거 시제

⑬ 에 :에게

‘에’는 무정물(無情物), ‘에게’는 유정물(有情物)에 붙는다. 돌이나 금속 같은 것은 무정물, 식물은 무정물, 국가나 사회단체도 무정물, 동물은 사람과 함께 유정물

⑭ 율, 열 :률, 혈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서는 ‘율, 열’로 그 외에는 모두 ‘률, 혈’로

비율, 실패율, 백분율 | 인상률, 확률, 낙찰률

나열, 치열, 비열, 선열, 분열, 이문열(이름) : 김창렬, 선동렬

3) 합성어 ‘사이시옷’

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 오랫동안, 하룻밤, 나뭇가지, 모깃불, 바닷가,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궂병, 샛강, 자릿세, 전셋집, 텃줄, 핏기, 화젯거리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ㄴ이나 ㅁ인 경우 : 아랫니, 젯날, 제삿날, 훗날, 뒷머리, 냇물, 빗물, 양칫물

③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인데 발음은 ㄴ으로 나는 경우 :

뒷일, 베갯잇, 깻잎, 나뭇잎, 가윗일, 예삿일, 훗일

④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몇 개
숫자, 횟수, 곳간, 셋방, 찻간

* 오랜만에, 오랫동안

4) 기타

① ~던지 : 과거 회상 - 얼마나 놀랐던지

~든지 : 내용을 가리지 않거나 선택할 때 - 가든지 말든지

② 명사+째 (전부) : 통째로, 넉쿨째

동사+채 (하고 있는 그대로) : 앉은 채로

③ ~ㄴ지 :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만 띄어 쓰고 나머지는 붙여 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지 말지, 갔는지도 몰라 떠난 지
한참 됐다.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이루었다.

④ ~데, ~_데(에) : 뒤에 '에'를 붙여서 어색하면 '데'를 앞말에 붙여 쓰고,
어색하지 않으면 띄어 씁니다.

⑤ 명사+조사이면 붙여 쓰고, 동사·형용사·관형사+의존명사이면 띄어
씁니다.

하늘만큼, 오늘만큼, 너만큼 | 할 만큼 했다.

나는 나대로 | 하고 싶은 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 할 뿐 아니라, 복지를 이루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더불어 살게 도와야 합니다. 바라볼 뿐입니다.

⑥ 한글 수사 _ 단위 의존명사 | 아라비아 숫자+단위 의존명사

한 다스 | 1다스

오천 원 | 5000원

십여 년 | 10여년

수 년간 | 2주간

대여섯 명 | 5~6명

* 한두 명, 두어 번 - 수 관형사가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는 붙여 씁니다.

⑦ 간

형제간, 이웃 간, 친구 간, 한국과 일본 간

* 합성어로 인정되어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만 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동기간/모녀간/형제간/자매간’은 합성어로 인정되므로, 모든 음절을 붙여 적지만, 합성어가 아닌 경우에는 ‘친구 간’, ‘사제 간’과 같이 각 단어를 띠어 적습니다

⑧ 한번, 한 번

빼도 되면 한번(=일단), 빼면 안 되는 경우 한 번

* 두 번, 세 번, 이렇게 셀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띠어 씁니다.

한번 만나 봐요. 한번 해 봐~ | 한 번 만났다.